

Biweekly Tex+Fa Brief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격주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업계 및 해외시장 동향, 주요 통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Biweekly Tex+Fa Brief”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주요 이슈

☞ 정부, 新FTA 추진전략 발표

- 산업부는 지난달 29일(수) '13년 6월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을 구체화한 내용의 '新FTA 추진전략'을 발표. 新FTA 전략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 (Mega) FTA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 체결된 FTA의 개선,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 3대 세부 추진 과제가 포함. 거대 FTA는 메가 FTA별 협상 진전 상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아세안·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도 개선할 방침. 아울러,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해, 올해 안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6개국 및 에콰도르와 FTA 협상을 개시할 계획

☞ 한·독 '섬유 융합 기술연구소' 설립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은 내년 250억원을 투자해 양국에 섬유 융합 기술연구소를 설립기로 함. 양국은 오는 10월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MOU를 체결할 계획. '한·독 융합기술연구소'에서는 섬유와 IT를 접목해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한국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 독일에서는 아헨공대 섬유기술연구소(ITA)가 각각 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게 됨. 연구소 입주 지역은 기능성 섬유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경기도에 세워지고, 독일에는 아헨공대 안에 설립될 예정. 경기도는 향후 연구를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이 활발히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섬산련, 브라질 섬유의를류협회와 MOU 체결

- 지난달 24일(금) 섬산련은 브라질 섬유의를류산업협회, 브라질 화섬협회와 한-브라질 섬유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양국 단체는 지난해 가을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열린 국제의를류연맹(IAF) 총회에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일정에 맞춰 MOU를 체결. 이들은 국제통상이슈, 무역정책, 산업협력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편 투자조사단, 무역사절단 파견 등에 협력하기로 함.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섬유시장으로 한국은 지난해 브라질에 1억5천9백만불의 섬유류를 수출했으며, 이번 MOU 체결로 양국 섬유산업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전시회 및 마케팅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전망

◆ 업계 동향

☞ 중국 온라인 업체, 한국 패션브랜드 유치 경쟁

-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B2B 플랫폼(1688.COM) 온라인 입점 설명회가 지난달 개최되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국 패션브랜드 유치가 강화. '알리바바 1688.COM'은 한국 의류만 전용으로 판매하는 코너를 이번달 오픈할 예정이며, 한국 패션기업 30여개사가 우선 참여할 것으로 예상. 지난해 거래액이 2,602억 위안에 달하는 JD닷컴 또한 한국 상품만을 선보이는 한국관을 준비중. 'K뷰티'에 이어 'K패션' 열풍이 불면서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무관세 혜택, 중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구매 거래 급증으로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하이하오(海淘)족의 급증으로 온라인몰 직진출이 패션업체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제직, 편직업체 설비도입 트렌드 변화

- 경기부진으로 국내 섬유기업들의 설비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주력아이템의 방향 전환을 위해 과감한 설비투자를 시도. 의류용 제직 기업들의 워터제트직기와 에어제트직기 도입 흐름이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레피어직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지속. 레피어직기는 특수용도 직물분야 및 다품종 소롯트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설비도입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편직분야에서도 로우게이지 일변도의 환편기에서 게이지의 다양화 및 하이게이지로의 설비 도입 흐름이 변화되고 있으며, 트리코트 경편설비 도입에서도 하이퀄리티의 다양한 패션, 특수용도 소재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작년 남북교역액 23.4억불로 사상 최고 기록

- 지난달 30일(목) 발간된 2015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 증가로 전년대비 106.2% 증가한 23.4억불로 남북교역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 우리측으로의 반입은 96.1% 증가한 12.1억불, 우리측으로부터의 반출은 11.3억불로 전년보다 118.3% 증가함. 교역 품목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등이 전체의 73.1%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한편, 섬유류 남북교역액은 8.3억불로 '13년(4.4억불) 보다 88.0% 증가했으며,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로 전년보다 3.0%p 하락함

☞ '2015 섬유패션업계 CEO포럼' 6월 10일 개최

- 섬산련은 6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5 섬유패션업계 CEO 포럼'을 개최. 섬산련은 섬유패션 업체, 단체, 유관기관의 최고 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정보 교류 및 스트림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CEO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장소를 제주도에서 평창으로 변경. 동 포럼은 섬유패션업계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FTA 경제영토를 활용해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자 업계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포럼 참가문의 : 섬산련 경영지원팀 T.02-528-4011)

◆ 해외시장 동향

☞ 미국, 섬유산업 유턴기업 증가로 투자 및 수출 증가

- 美전국섬유연맹(NCTO)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해 있던 미국 섬유업체들이 최근 햄프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임. 미국 섬유산업 유턴기업 증가의 주요 원인은 미국 경기회복, 아시아 지역의 노동비용 및 운송비용 상승, Made in USA 운동 등임. NCTO는 Unifi Inc., Inman Mills 등 13개의 미국 및 해외 기업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의 지역에 20억불 이상을 투자하고,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미국상무부에 따르면, '13년 미국 섬유산업(의류 제외)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26.1% 증가한 15.6억불, '14년 미국 섬유(의류 제외) 수출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82.7억불을 기록

☞ 인도, 베트남에 섬유산업단지 조성 계획

- 인도합성섬유수출진흥회(SRTEPC)는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에 인도 섬유산업 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며, 자국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인도-베트남 정부는 '14년부터 섬유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 중으로, '15년 초 인도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 섬유 원부자재 및 섬유기계 구입에 대해 3억불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기도 했음. 한편, 베트남은 미국 등 12개국과 협상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영향으로 섬유의류산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베트남은 섬유 생산기반 부재로 대부분의 섬유 원부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TPP 영향으로 VINATEX, Delta Galil 등 국내의 섬유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중국, 친환경 섬유·의류 생산으로 연간 14.7백만불의 운영비 절감

-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NRDC)는 중국 33개 섬유업체와 지난 2년간 친환경 생산 프로그램을 실시. 33개 섬유업체들은 중국 섬유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저장성 사오싱시, 광둥성의 광저우시에 위치해 있으며, Target, H&M, Gap, Levi's 등 대형 의류업체에 친환경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동 협의회에 따르면,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 도입으로 300만톤의 용수, 61,000톤의 석탄, 3,600만 Kwh의 전기, 400톤의 화학물질 사용을 줄여 1,470만불의 운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 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향후 중국 섬유산업이 밀집해 있는 장쑤성 쑤저우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의류연합(SAC)과 협력해 대형 의류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

◆ 주요 통계발표 자료

☞ 산업부, '15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 대형마트 매출은 등산용 아웃도어 상품 수요 감소와 전년대비 휴일 영업일수 감소(△1일) 등으로 스포츠(△12.7%), 의류(△10.6%), 식품(△5.1%) 등의 매출이 줄면서 6.5% 감소. 백화점은 트렌치 코트 등 간절기 의류 및 잡화 상품의 판매 저조로 5.7% 감소함 (잡화 △6.6%, 아동스포츠 △8.6%, 여성캐주얼 △8.2%, 해외유명브랜드 △4.8%, 여성정장 △4.6%, 남성의류 △8.8%)

< 유통업체 매출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

구분	'14년	'14년										'15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대형마트	△3.4	△3.7	△4.1	1.2	△5.9	△4.6	3.2	△10.1	△0.9	△4.7	△3.8	△18.3	24.5	△6.5
백화점	△0.7	△1.1	△1.4	0.8	△4.6	2.0	10.5	△6.3	△2.2	△6.5	△0.9	△11.0	6.6	△5.7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기업 업황지수 조사 결과

- '수출기업 2015년 1분기 업황 평가 및 2분기 실적 전망' 조사 결과,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물량 및 채산성이 모두 악화되면서 전분기(95)보다 하락한 90을 기록, '13년 1분기(89) 이후 최저치를 기록. 산업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전자, 석유화학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철강 및 비철금속, 기계류, 섬유류는 크게 악화됨.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64.4%)와 원화환율 변동(31.1%) 때문인 것으로 조사. 아울러, 수출기업들은 2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이 1.2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산업별로는 해운(6.5%), 섬유류(4.2%), 플랜트·해외건설(1.7%) 등에서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조사됨

◆ 원자재 가격 동향

- ☞ 원면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7월 인도물 가격이 66.61센트를 기록했으며, 미국 고품질 원면에 대한 수요 증가와 베트남의 오더 증가 등으로 미국 원면 수출이 증가. 인도의 경우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시즌 생산량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중국은 비축 원면을 7월부터 판매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음. 화섬원료 가격은 아시아 지역 주요 공급업체들의 정기 유지보수 등으로 생산량이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임. 원유 가격 회복과 기초원료(PX) 가격 상승 등으로 화섬원료 가격은 4주전 대비 약 20% 가까이 오름

품 목(단위)	날짜	조건	가격	1주전 대비	4주전 대비	3개월전 대비
원면(¢/LB)	5/1	미국('15년 7월 인도분)	66.61	0.4%	2.7%	7.0%
PTA(\$/MT)	5/4	CIF China (90 days credit term)	740	0.0%	19.4%	25.4%
MEG(\$/MT)			1,005	△0.5%	18.5%	29.2%

섬유패션산업 동향

Biweekly Tex+Fa Brief

- 발행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 홈페이지 : www.kofoti.or.kr
 - 전화 : 02-528-4024 / 팩스 : 02-528-4070
-